여섯번째 이야기

당신의 War Room 은 어디입니까

정세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역대하 7:14)

셔우드 침례교회의 목사이자 영화감독이자 배우인 Alex Kendrick의 다섯 번째 영화인 ‘War Room’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부동산 중개인인 엘리자베스, 그의 남편 토니와 이 부부의 열 살된 딸 다니엘로 구성되는 한 가정의 회복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는 수 많은 싸움 중 진짜 적은 누구이며,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며 모든 전쟁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전실, 즉 'War Room'의 필요성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조단 부부는 16년의 결혼생활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부간 사랑이 식어지고 처제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문제로 인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보통의 가정이 겪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클라라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50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려고 하고 있으며, 벽에는 여러 장신구와 함께 주님께서 확답을 주신 기도가 걸려 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집 가운데 세 곳을 좋아한다고 소개합니다. 세 번째는 거실, 두 번째는 식당,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그녀가 'War Room'이라 부르는 옷장입니다. 그 곳은 텅 비워져 있고, 오직 기도문이 벽에 붙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어디

인지, 그 곳에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처음에는 집안 곳곳 눈길이 머물다가 제 마음 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마음 속 한 켠에 나만의 공간을 두고 그 누구도, 심지여 예수님 조차 못들어오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회개를 하며 영화 속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조단 가족은 리버데일 커뮤니티 교회의 예배에 참여합니다. 예배 중 다른 여성도를 훑어보는 남편의 눈길을 엘리자베스가 발견하고는 고개를 젓습니다. 예배 중 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할 때를 들킨 것 같아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엘리자베스의 집안에 문제가 있음을 어렴풋하게 알아차린 클라라는 두 번째로 찾아온 엘리자베스에게 가정사에 대해 지혜롭게 묻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가끔 다니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처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믿음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고 대답하는 엘리자베스에게 클라라는 미지근한 커피를 대접하며 엘리자베스가 스스로의 믿음 상태에 대해 깨닫고 대답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회사 안에서 적용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중에 믿음은 있으나 힘들어하며 숨기며 지내는 동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뭔가를 제공하려고만 했던 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클라라는 생에서 한 가지만 바꿀 수 있다면 무엇인지 엘리자베스에게 묻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가정 생활이라고 대답하며, 부부 관계 속에 한가지 잘 하는 것이 있다면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남편과 논쟁을 한 뒤 이겼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그리고 진짜 적은 남편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속에 진짜 적이 누군지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 쉽게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아내와의 가벼운 언쟁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를 안내합니다. 옷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War Room'이라 불렀습니다. 여자로서 좋아할만한 것들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오직 본인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만이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어 기도전략에 대해 얘기하며 엘리자베스에게 일주일 동안 하루 1시간씩 자기와 함께 있어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심 가지고 섬겨야할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BEE 과목 중 마가복음의 주제와 일맥상통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일회성이고 개인적이고 작은 것이고 관계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것의 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딸을 사랑합니다. 적어도 딸과 이런 대화를 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 다니엘은 자신이 속한 줄넘기 팀이름, 팀 색상, 최근에 배운 줄넘기 기술, 새코치이름, 지난 주에 어떤 상을 탔는지에 대해 울면서 물어보지만 엄마는 하나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곱씹어봤습니다. 제 딸아이를 사랑한다 하면서 얼마나 공감하고 있었는지, 제 아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에 대해 얼마나 같이 얘기를 해봤는지,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관심사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BEE의 많은 구성원들을 보면서 이름조차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실천에 옮깁니다. 성경 구절을 받아 적고 옷장 벽에 붙입니다 그 뒤 기도할 의자를 준비합니다.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아보고, 나무 의자를 놓고 앉아보지만 여전히 불편합니다. 푹신한 프리백을 놓고 앉아봅니다. 편안합니다. 아직 세상을 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옷들과 신발들은 그대로입니다. 기도가 익숙하지 않고 주의의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신발의 냄새도 맡아봅니다. 냄새가 독합니다.프리백에 눕다시피 해서 과자와 음료

수를 마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할 분위기와 여건을 만들어 놓지만 정작 기도하는데 집중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들과 통화나 카톡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맺지만 잠시 눈을 감고 묵상만 하고 끝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게 됩니다.

클라라는 엘리자베스에게 남편 토니가 잘못한 것을 노트에 적도록 합니다. 작성하다 보니 세 페이지에 이릅니다. 클라라는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까? 그러면 엘리자베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격 없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왕좌가 있는가를 묻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스스로에 대해 너무 불만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장 단점에 대해 쭈욱 적다보니 장점은 몇 줄 안되는데 단점은 두 세 장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친구로부터 남편이 낯선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문자를 받고서 엘리자베스는 옷장에서 진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남편에게 화가 나 있었음을 고백하고, 본인이 심판관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대적기도를 하고 선포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옷장을 치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딸도 기도문을 벽에 붙입니다. 이제 조단부부의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더 어려운 시험이 눈앞에 다가옵니다. 토니가 회사에서의 잘못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의 전도와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고서도 더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을 묘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단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하지만 곧이어 다가오는 시험에 속절 없이 무너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토니는 옷장을 발견합니다. 드디어 'War Room'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도문을 자세히 읽습니다. 결혼식 때의 사진을 다시 봅니다. 딸이 줄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적은 쪽지도 봅니다. 주님 안에서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싫지만 어떻게 고쳐야할지 모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이어서 부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용서를 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클라라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하지만 토니에게는 마지막 유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동안 빼돌렸던 약을 팔아서 이익을 챙길 것인지 회사에 사실대로 얘기할 것인지를 갈등합니다. 토니는 회사에 찾아가서 약을 빼돌린 것을 고백합니다. 기존에 동일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도 함께 고백합니다. 그러고는 회사의 어떤 결정도 받아들이겠다고 결심합니다. 참 끈질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고 선포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는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토니에게도 또 다른 실천이 필요했습니다. 회사에서 토니를 아니꼽게 보던 톰의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마친 그 옆을 지나던 토니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톰의 자동차를 고쳐줍니다. 왜 그를 도와줬냐는 딸의 질문에 토니는 자신도 그렇게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때론 마음이 언짢고 발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기가 싫은 경우를 맞닥뜨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BEE 가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당연히 도와준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할 일일 것입니다.

클라라는 성경을 펼칩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녀는 또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기도하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글을 마칩니다. 미디어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나 방대하고 집요합니다. 대부분 선하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며, 특히 젊은층을 휘어잡고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아주 강력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작은 의미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당신의 'War Room'은 어디입니까?

정세화 집사님은...

- 이름 : 정세화(鄭世和)
- 생일 : 1973년 5월생
- 가족 : 아내(권은미, 동갑), 큰 딸(정세은; 16세), 작은 아들(정은석; 9세)
- 섬기는 교회 : 계양제일교회
- 직장 : 증권회사 IB(Investment Banking; 투자은행)
- BEE를 알게된 동기 : 같은 회사 이○○ 집사의 소개로 2013년부터 세미나를 시작. 현재 서남아테이블과 루체를 섬기고 있음
- 현재 상황 : 가족들은 인도 Dehradun 거주 중이며, 혼자 독수리도 아니고 펭귄도 아닌 펑범한 기러기 생활 가운데 원활한 비자 발급을 위해 한국어교원2급 준비(3학기) 중임
- 향후 계획 :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 또 순종!!
- 가족들 거주지역

BEE 소식

1. '그 자취를 찾아서" (터키 성지 순례) 팀 21명이 16일부터 21일까지 그 땅을 밟으러 떠납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2. 정은희 선교사님 암 완치 판정 받으신 기쁜 소식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 'BEE 오는 수요일'에 기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간증이나 독후감 영화평 등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한숙영 권사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맞은 시기에 ‘BEE 오는 수요일’을 통해 회원들께 흘려보내겠습니다.